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한 미 정

최 정 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본 연구는 현직 중등교사 184명(교직경력 10년 이상자)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의미수준 및 죽음불안 정도를 살펴보고,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측정도구는 Purpose in Life(PiL) Test와 The Collett-Lester Fear of Death and Dying Scale(FDDS) Test이다. PiL Test에서는 삶의 의미수준을 上, 中, 下로 구분하게 되고, FDDS Test는 대상자가 느끼는 죽음 불안 및 그 하위요인으로서 DS(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 DO(타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 DyS(자신이 죽어 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불안), DyO(타인이 죽어 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불안)를 측정하게 된다.

결과는 피험자 중 70%가 중이하의 삶의 의미수준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 중에서 특히 17%는 삶의 의미수준 下인 실존적 공허를 경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죽음에 대하여도 중이상의 불안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죽음불안에 있어 연령변인은 매우 주목할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30대' 연령집단이 가장 높은 죽음 불안을 보였고, 50대 연령집단이 가장 낮은 죽음불안을 나타냈다.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 간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있는($P < .0001$)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즉 삶의 의미수준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은 낮아짐을 보여주었다.

인간 존재(Being)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인간 동기의 근본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Reker,

1977; Frankl, 1967).

그러나 인간 존재(Being)는 원초적으로 근본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불안이

란 유한한 존재가 비존재(Non-Being)의 위협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 즉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이 불안은 실존 자체에 속에 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비존재가 존재를 위협하는 세가지 모양이 있는데, 죽음의 형태로 인간의 존재적 자아공정을 위협하고, 무의미성의 형태로 인간의 정신적 자아공정을 위협하며, 정죄의 형태로 인간의 도덕적 자아공정을 위협한다(Tillich, 1978). 즉, 죽음에 대한 불안, 무의미성에 대한 불안, 정죄에 대한 불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신득렬, 1981)라 할 수 있고, 종종 나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그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실제로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비존재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고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문제는 삶의 의미와 깊은 관계가 있다. 삶의 무의미성은 그의 존재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즉,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절망을 참아내기 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존재적 생존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삶이 언제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식할 때, 그의 삶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즉, 죽음이라는 한계상황 앞에서 깊이 명상하는 인간은 천박한 자기이익을 위해 타자를 억압하거나 도구로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의미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와 죽음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1. 삶의 의미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 필수적인 질문이다. 존재의 의미를 문제삼는 일이야 말로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의 기준인 것이다(Frankl, 이현수 역, 1983). 왜냐하면 동물은 그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 자신의 존재를 문제삼는 것을 결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 상실을 가져왔다. 즉 핵시대의 인간은 자신의 창조적인 힘이 자기파멸의 가능성까지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미래가 전혀 없을지도 모른다는 허무주의를 의식하게도 한다(Nouwen, 이봉우 역, 1982).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공허감과 무의미감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다. 즉, 20세기의 인간은 전면적인 의미성의 붕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의미 추구의 의지가 좌절된 상태를 실존적 좌절(existential frustration)이라 하고, 그 결과 삶이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내적, 정신적 공허에 시달리게 되는 상태를 ‘실존적 공허(Existential Vacuum)’라 한다(Frankl, 1969). 실존적 공허는 인간의 삶에 독특한 정체감을 주는 의미감과 목적을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심리적 상태이며 일종의 자아소외 현상이다(Crumbagh, 1964, 1968). 즉, 삶을 보람찬 것으로 만들어야 할 실존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완전한 결여나 상실의 체험을 말한다.

Frankl(1969)은 삶의 의미에 대한 “logotherapy” 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모든 질병은 삶의 의미의 결여에서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의미를 통한 치료’를 주장한다. 이것은 Freud가 모든

질병이 성의 억압에서 생기고, 쾌락적인 추구가 삶의 기본동기라고 단정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인간이 단순히 쾌락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삶은 결국 무의미하게 될 것이며, 특히 죽음에 직면해서는 인간의 어떠한 쾌감도 모두 다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이현수역, 1983).

그러면서 삶을 의미있게 할 수 있는 세가지 가치를 제시하는데, 즉 창조적 가치, 체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이다(Frankl, 1967).

창조적 가치란 창조적 활동 속에서 실현되는 것으로써, '인간이 사회에 무엇을 줄 것인가'와 관련되며 능동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즉 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한 개인이 창조적 가치라 부를 수 있는 일을 실현, 성취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함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이란 사회와의 관계속에서 그 개인이 지니는 독특성을 대표하는 것이며, 의미와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체험적 가치는 '인간이 이 사회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이는가'와 관련되는 것이며, 예술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함으로써, 또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는 체험을 통해 실현된다.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의 모든 독특성, 유일성을 이해함으로써 체험적 가치를 실현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가치를 깨닫는 것은 한 인간을 풍요롭게 해 주며, 이 내적인 풍요로움은 삶의 의미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태도적 가치는 '자기가 변화시킬 수 없는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일에 직면해야만 할 경우에 이 곤경에 대해서 그가 취하는 태도'이다. 즉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받아들여 견디어 내는 용기, 의연함 등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 주는 가장 높은 가치는 바로 태도적 가치이다. 삶이 창조적으로 훌륭

하지 못할지라도, 또한 체험이 풍부하지 못할지라도 태도적 가치를 지닌 인간은 삶을 근본적으로 의미있게 만든다. 즉, 인간의 삶이 의미있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 뉘 수 없는 일부인 고통과 죽음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의미는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에 따라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태도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서 인간은 어떠한 극한 상황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Frankl의 삶의 의미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rumbaugh와 Maholick(1964)은 PiL(Purpose in Life) 검사를 개발하였는데, 이 검사를 통해 실존적 좌절(의미추구의 의지가 좌절된 상태)을 측정할 수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밝혀졌다(Crumbaugh와 Maholick, 1964; Crumbaugh, 1968; Reker, 1977).

2. 죽음불안

죽음불안 또한 인간의 기본적 염려이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마침내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우리 인류의 절대적 명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공리(公理)에 대해 '나는 죽지 않는다'는 무의식적 본능의 신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Kubler Ross, 성영역, 1979). 죽는다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공공적(公共的)인 사건일 뿐이라고 그릇 이해한다.

따라서 죽음을 향하고 있는 일상적 존재의 설명은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당분간은 죽지 않는다'이다. 사람들은 죽음이 확실히 다가오고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염려할 것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이라는 말을 통하여

사람들은 사실상 죽음의 확실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하이데거, 이인석역, 1986).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에게 혐오의 대상이었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러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죽음이 Taboo시 되고 죽음에 관해 말하는 것이 건전치 못하다고 단정하며, 아이들에게 '차마 볼 것이 못된다'하여 죽음의 현장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상례였다. 따라서 현대 교육철학인 분석적 교육철학에서는 물론 전통적 교육철학에서도 죽음의 문제는 다루지 않은 채로 은폐되고 있었다(신득렬, 1981).

그러나 죽음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으며, 그 죽음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리고 반드시 우리 앞에 선뜻 다가온다. 안정되고 평안한 미래만 기대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런 죽음이 엄습해 올 때, 그때의 불안과 절망은 더욱 클 것이다.

죽음이 이렇게 보편적인 것이요, 절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음에 관하여 많은 것을 모른다. 죽음이 결코 객관적인 지식이나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죽음의 현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의의 주제가 되고 있다. 죽음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우리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사실 속에서 인간존재의 의미를 발견해야만 한다.

3.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인간의 삶이 의미있는 것이라면, 인간의 삶 가운데서 땀해야 땀 수 없는 일부인 고통과 죽음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

이며, 그 의미는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에 따라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태도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서 인간은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태도적 가치는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죽음이 임박해 와도 태도적 가치로써 최후의 순간까지 삶의 의미를 충만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죽음을 그의 삶에 속해있는 일부분으로 그의 삶을 하나의 의미있는 전체성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결국 죽음은 삶의 의미를 파괴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죽음을 통한 삶의 유한성은 삶의 질을 높여주며,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끔 강권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마침내 그 삶의 의미는 또한 죽음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평균나이 45세인 호스피스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와 죽음의 불안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삶의 의미를 충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죽음불안 정도가 낮게 나왔다(Amenta, 1984).

65세 이상의 할머니 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생의 만족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생의 만족과 죽음에 대한 불안 간에는 부적 함수관계에 있었다(Tate, 1982).

노인들에게 있어서 생의 만족과 죽음의 수용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생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들이 낮은 노인들보다 죽음의 수용성이 높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Flint, Gayton와 Ozmon, 1983).

4.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삶의 의미는 대상자 배경변인(성별, 연령, 전공별, 종교유무 및 신앙심, 건강수준, 생활정도, 결혼유무, 친지의 죽음경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죽음에 대한 불안은 대상자 배경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에 대한 불안 및 그 하위요인(DS, DO, DyS, DyO)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들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3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경기도 모 대학에서 실시되는 중등교사 연수회에 참석한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1998년 1월 16-22일에 걸쳐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중 35세 미만과 경력 10년 미만자를 제외하였고,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184부이다.

수집된 질문지의 각 문항과 질문지의 내용 및 성격 등을 나누어 부호화한 자료를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사용된 주요 통계방법은 t-test, ANOVA, Scheffe 사후검증, Pearson 단순 상관계수 등이다.

2. 측정도구

1) 삶의 의미수준 측정도구(PiL)

삶의 의미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PiL

(Purpose in Life) Test를 사용하였다. PiL Test는 Crumbaugh와 Maholick(1964)가 Frankl의 삶의 의미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 이 검사를 통해 실존적 좌절(의미추구의 의지가 좌절된 상태)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검사는 A, B, C형이 있는데, B, C형은 임상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고, A형(20문항)을 사용하였다. A형은 각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의미있게 보며, 인생의 목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로 사용하였고 20-100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 정도가 높은 것이다. PiL Test에서 삶의 의미수준은 下(65% 이하), 中(66-80%), 上(81%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下는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미)이 결여된 '실존적 공허'를 의미하고, 中은 삶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indecisive) 상태를 말하며, 上은 명백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PiL Test A 형의 신뢰도는 Crumbaugh와 Maholick(1964)에 .81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88이다.

2) 죽음불안 측정도구(FDDS)

죽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The Collett-Lester Fear of Death and Dying Scale(FDDS; Collett와 Lester, 1969)으로,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Likert 척도로 채점된다.

이 도구는 또한 죽음에 대한 4가지 태도를 측정한다. (1)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fear of death of the self, DS), (2) 타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fear of death of others, DO), (3) 자신이 죽어 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불안(fear

of dying of the self, DyS), (4) 타인이 죽어 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불안(fear of dying of others, DyO)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죽음불안과 4가지 죽음에 대한 하위 변인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죽음불안은 전체적으로 볼 것이다. 단지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는 4가지 하위변인과의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5이다.

결 과

1. 삶의 의미수준

PiL에서 삶의 의미수준은 上, 中, 下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下집단은 삶의 의미수준 65%미만으로 실존적 공허를 의미하며, 上집단은 삶의 의미수준 81% 이상으로 삶의 목적이 명백한 것을 의미한다(Crumbaugh와 Maholick, 1964; Crumbaugh, 1968).

중등교사의 삶의 의미수준은 76% 정도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中 수준을 의미한다. 中은 삶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indecisive) 상태이다.

주목되는 결과는 피험자 중 70%가 中이하의 삶의 의미수준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 중에서 특히 17%는 삶의 의미수준 下인 '실존적 공허'를 경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배경변인과 삶의 의미와의 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고, 성별, 신앙심, 건

강수준, 생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1에서 보면, 먼저, 남자가 여자보다 삶의 의미수준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였다($p < .05$).

다음, 삶의 의미와 신앙심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고, 上집단에서 삶의 의미수준이 가장 높았으며($p < .05$),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신앙심 上집단과 신앙심 無(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집단) 집단 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 삶의 의미와 건강수준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는데($p < .0001$),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삶의 의미수준이 가장 높았다.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집단과 '건강치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뿐만 아니라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집단과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 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 삶의 의미와 생활정도에서도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고($p < .01$), 생활정도 上집단이 가장 높았다.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정도 中집단과 생활정도 下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

2. 죽음불안

죽음불안 측정도구는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Likert 척도로 채점된다. 죽음불안은 총 36-144점 범위를 갖고 이것을 분석한 결과, 중등교사가 지각하는 죽음불안은 평균 93으로, 죽음불안이 中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배경변인과의 죽음불안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배경변인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변수	구분	피험자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F-value	
성별	남	87	47.3	76.01	11.82	1.60*	
	녀	97	52.7	75.88	9.35		
연령	30대	35	19.2	75.19	8.74	0.11	
	40대	111	61.0	76.10	10.61		
	50대	36	19.8	76.26	12.16		
전공	윤리	9	4.9	77.44	12.54	1.10	
	국어	36	19.6	76.54	11.405		
	수학	12	6.5	71.75	7.92		
	영어	22	12.0	74.58	10.46		
	가정	16	8.7	77.19	8.66		
	사회과목	17	9.2	73.12	10.69		
	음악·미술	22	12.0	77.18	8.92		
	제2외국어	9	4.9	71.556	10.26		
	공업과목	12	6.5	76.167	14.515		
	체육·교련	9	4.9	75.89	10.28		
	과학과목	12	5.4	75.80	8.79		
	상업과목	8	4.3	86.57	10.61		
기타	2	1.1	-	-			
종교유무	유	119	65.0	77.23	9.83	1.39	
	무	64	35.0	73.63	11.59		
	있음	기독교	59	32.1	77.91	10.45	2.13
		천주교 불교	37 23	20.1 12.5	75.53 78.30	9.34 8.96	
신앙심	상	32	17.4	80.97	10.32	3.56*	
	중	52	28.3	75.86	9.44		
	하	36	19.6	75.576	9.066		
	무	64	35.3	73.65	11.59		
건강수준	매우 건강	17	9.2	83.76	11.45	7.44***	
	건강	96	52.2	77.32	10.32		
	그저 그렇다	52	28.3	73.02	8.80		
	건강치 못함	19	10.3	70.37	10.48		
생활정도	상	70	38.3	78.94	10.49	4.61**	
	중	104	56.8	74.43	9.64		
	하	9	4.9	71.67	16.71		
결혼유무	유	172	94.0	76.02	10.72	1.70	
	무	11	6.0	74.00	8.23		
친지의 죽음경험	유	85	46.4	75.95	10.81	1.08	
	무	98	53.6	75.84	10.41		

(*p<.05 ; **p<.01 ; ***p<.001)

표 2. 배경변인과 삶의 의미와의 관계

변수	구분	피험자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F-test	
성별	남	87	47.3	88.78	11.35	1.19	
	녀	97	52.7	97.45	10.43		
연령	30대	35	19.2	98.54	10.60	5.16**	
	40대	111	61.0	92.88	12.39		
	50대	36	19.8	90.056	9.01		
전공	윤리	9	4.9	93.78	14.23	1.86*	
	국어	36	19.6	94.64	10.68		
	수학	12	6.5	94.25	10.75		
	영어	22	12.0	95.64	12.42		
	가정	16	8.7	100.88	10.91		
	사회과목	17	9.2	92.41	9.42		
	음악·미술	22	12.0	90.59	8.72		
	제2외국어	9	4.9	92.89	13.79		
	공업과목	12	6.5	85.00	6.77		
	체육·교련	9	4.9	90.67	14.57		
	과학과목	12	5.4	86.40	16.29		
	상업과목	8	4.3	96.75	11.90		
기타	2	1.1	-	-			
종교유무	유	119	65.0	92.798	12.07	1.20	
	무	64	35.0	94.45	11.01		
	있음	기독교	59	32.1	90.27	13.09	2.14
		천주교 불교	37 23	20.1 12.5	94.86 95.87	9.86 11.63	
신앙심	상	32	17.4	87.69	11.93	3.19*	
	중	52	28.3	95.00	9.99		
	하	36	19.6	94.33	13.697		
	무	64	35.3	94.297	11.02		
건강수준	매우 건강	17	9.2	83.706	8.02	5.07**	
	건강	96	52.2	93.38	11.66		
	그저 그렇다	52	28.3	95.65	11.05		
	건강치 못함	19	10.3	95.53	12.58		
생활정도	상	70	38.3	93.10	12.48	0.66*	
	중	104	56.8	93.23	11.17		
	하	9	4.9	97.78	11.77		
결혼유무	유	172	94.0	93.44	11.78	1.19	
	무	11	6.0	92.91	10.78		
친지의 죽음경험	유	85	46.4	92.76	12.70	1.38	
	무	98	53.6	93.91	10.81		

(*p<.05 ; **p<.01)

표 2에 의하면 죽음불안에 있어 연령, 전공, 신앙심, 건강수준, 생활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죽음불안과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냈고($p < .01$), '30대' 연령집단에서 죽음불안이 가장 높았다. 집단간의 차이를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30대' 연령집단과 '40대' 연령집단에서 뿐만 아니라 '30대' 연령집단과 '50대' 연령집단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음, 죽음불안과 교사들의 전공과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고($p < .05$), 가정과목이 가장 높은 죽음불안을, 공업과목이 가장 낮은 죽음불안을 보였다. 그러나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 죽음불안과 신앙심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는데($p < .05$), 신앙심 상집단이 가장 낮은 죽음불안을 보였다. 집단간의 차이를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신앙심 상집단과 신앙심 하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 죽음불안과 건강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

미있는 결과를 보였고($p < .01$), '매우 건강하다' 집단에서 가장 낮은 죽음불안을 보였다. 집단간의 차이를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집단과 '건강하다'고 응답한 집단 뿐만 아니라 '매우 건강하다' 집단과 '그저 그렇다' 집단, '매우 건강하다' 집단과 '건강치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 죽음불안과 생활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는데($p < .05$),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3.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 간의 관계

삶의 의미수준(上, 中, 下)과 죽음불안(D) 및 죽음불안에 대한 4가지 하위변인(fear of death of the self(DS), fear of death of others(DO), fear of dying of the self(DyS), fear of dying of others(DyO))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여 주듯이, Pearson 단순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본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D)

표 3.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삶의 의미수준(PiL)						F-Value	상관관계 (Pearson)
	상(N=54)		중(N=99)		하(N=31)			
	M	SD	M	SD	M	SD		
D	88.85	12.84	99.81	9.73	99.74	12.35	9.53****	$r = -0.368^{***}$
DS	23.72	4.94	25.06	44.12	26.94	5.21	4.91**	$r = -0.246^{***}$
DO	25.85	3.87	27.08	3.87	28.42	4.23	5.23**	$r = -0.28^{***}$
DyS	13.52	2.50	14.40	2.17	15.06	2.68	4.65**	$r = -0.347^{****}$
DyO	25.76	4.37	27.26	3.29	29.32	3.00	9.72****	$r = -0.34^{****}$

(** $p < .01$ *** $p < .001$ **** $p < .0001$)

및 죽음불안 하위변인(DS, DO, DyS, DyO) 간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삶의 의미수준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삶의 의미수준 上집단이 모든 죽음불안 변인에서 가장 낮은 죽음불안을 보였고, 삶의 의미수준 下집단이 가장 높은 죽음불안을 보였다. 집단간의 차이를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D)과의 관계는 삶의 의미수준 上집단과 中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수준 上집단과 下집단 및 삶의 의미수준 中집단과 下집단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 삶의 의미수준과 fear of death of the self(DS), fear of death of others(DO), fear of dying of the self(DyS)와의 관계에서는 삶의 의미수준 上집단과 下집단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삶의 의미수준과 fear of dying of others(DyO)와의 관계에서는 삶의 의미수준 上집단과 中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수준 上집단과 下집단 및 삶의 의미수준 中집단과 下집단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문제에 입각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피험자로 선정한 중등교사의 삶의 의미수준은 76%로 中 정도의 삶의 의미수준을 보였고, 이는 삶의 목적이 명백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 수준에 속한 피험자는 연구대상 184명 중에 99명으로 53%에 해당된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결과는 삶의 의미수준 下인 실존적 공허를 보인 중등교사가 17%나 된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청소년 교육을 책임지는 중등교사의 70%가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교육현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청소년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고,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목적을 심어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들 중 17%가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다는 점은 우리의 교육 현실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문제이며,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염려를 지혜해 주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0% 이상이 실존적 공허를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화조, 1976, 신숙희, 1982, 김진원, 1995).

2. 삶의 의미수준은 성별, 신앙심, 건강수준, 생활수준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

1)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삶의 의미수준이 높았다. 이것은 Crumbaugh와 Maholick(1964), Murphy(1967), 이정화(1986), 김진원(1995) 등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의 가족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남자

는 가족을 부양하고 가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되어져 왔고, 이런 의미에서 직업이란 자신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삶의 의미수준을 높일 수 있다.

2) 신앙심 정도에 따라 삶의 의미수준에서 차이가 났다. 신앙심 수집단이 가장 높은 삶의 의미수준을 보였고, 신앙심 무집단(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집단)이 가장 낮은 삶의 의미수준을 나타냈다. 이것은 Namkung(1980), 신숙희(1982), 김진원(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개인이 단순히 종교에 참여하는 것(유무) 보다는 뚜렷한 종교적 신념이 인간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고,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개인의 지각된 삶의 의미와 목적은 종교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종교의 목적이 정신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Frankl(1967)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3) 건강수준과 삶의 의미수준에서 '매우 건강하다' 집단이 가장 높은 삶의 의미수준을 보였고, '건강치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가장 낮은 삶의 의미수준을 나타냈다.

여기서의 건강수준은 본인이 스스로 지각하는 것이다. 즉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관련성 여부를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4) 생활정도도 삶의 의미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생활정도가 부유할수록 삶에 대하여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생활정도를 실제적인 수입의 정도로 평정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평가라는 점이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등교사의 월급수준은 비슷하지만 스스로 느끼는 여유가 차이가 있고, 그것에 따라 삶의 의미수준에서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해

야 할 것이다. 즉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이 삶의 의미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피험자가 지각하는 죽음불안 수준은 65% 정도에 해당한다. 즉 죽음불안이 中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중등교사들의 70%가 명백하지 않은 삶의 의미수준을 보이거나 실존적 공허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수준도 예상되는 결과였다.

인간의 삶이 의미있는 것이라면 이 삶 가운데 뭘해야 뭘 수 없는 일부인 죽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아통합이 잘 이루어졌을 때, 즉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지각될 때 죽음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는 점은 에릭슨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이다. 결국 자신의 죽음에 대한 사실속에서 인간존재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수용 정도는 일치하지 않게 보고하고 있다. 노인들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Templer, 1970; Kalish, 1976; 장미란, 1981; 서혜경, 1987; 한미정, 1994)와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가 있다(김태현과 손양숙, 1984; 양혜정, 1992).

4. 피험자의 죽음불안은 연령, 전공, 신앙심, 건강수준, 생활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죽음불안과 연령변인과의 관계이다.

1) '30대' 연령집단에서 가장 높은 죽음불안을 보였고, '50대'가 가장 낮은 죽음불안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노인들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다(Templer,

1970; Kalish, 1976; 장미란, 1981; 서혜경, 1987; 이순분, 1992; 한미정, 1994). 즉, 노인들이 일반인들보다 죽음 불안이 더 크지 않다는 의미이고, 젊은 세대일수록 죽음을 '무섭다'라고 느끼는 것에 비해 노인은 죽음을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栢木哲夫, 1990; Kalish, 1976).

또한 이러한 결과는 40대의 높은 사망율에 대한 불안감을 실제로 보여주는 결과였고, 막상 40대가 지나 5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죽음불안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Kalish(1976)는 노인들이 죽음을 덜 두려워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노인들은 자기의 생명에 큰 가치를 두지 않으며 자신의 미래가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들은 자신이 충분히 살았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사람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타인의 죽음과 많은 연관을 갖게 되고, 그러한 경험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2) 교사들의 전공과목도 죽음불안과 관계가 있었는데, '가정'과목이 가장 높은 죽음불안을, '공업'과목이 가장 낮은 죽음불안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가정'과목은 대부분 여자교사들이고, '공업'과목은 대부분 남자교사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를 끄는데, 이것은 삶의 의미수준과 성별과의 관계에서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삶의 의미수준이 낮았다는 점과 연결 지어 볼 수 있겠다.

3) 신앙심은 삶의 의미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죽음불안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신앙심 상집단이 가장 낮은 죽음불안을 보였고, 신앙심 하집단이 가장 높은 죽음 불안을 나타냈다.

이것은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 가장 낮은 죽음

불안을 나타낸다고 보고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Martin와 Wrightsman, 1965; Williams와 Cole, 1968; Templer, 1971; Feifel과 Branscomg, 1973; Kalish와 Reynolds, 1976; Wagner와 Lorion, 1984; 한미정, 1994).

이러한 결과는 뚜렷한 종교적 신념이 죽음에 대한 불안정도를 약화시키며, 신에게 의지하고, 내세에 대한 기대로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진다.

4) 건강수준도 삶의 의미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죽음불안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예상대로, '매우 건강하다' 집단이 가장 낮은 죽음불안을 보였고, '건강치 못하다' 집단이 가장 높은 죽음불안을 나타냈다.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조지연, 1989, 양혜정, 1992).

5) 생활정도 또한 죽음불안과 관계가 있었는데, 자신이 인식한 경제적 여유(본 연구에서의 생활정도는 실제적인 수입정도로 평정한 것이 아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낮았다. 중등교사의 월급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스스로 느끼는 경제적 여유, 즉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은 삶의 의미수준을 높이는 한편 죽음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삶의 의미수준(上, 中, 下)과 죽음불안(D) 및 그 하위변인[fear of death of the self(DS), fear of death of others(DO), fear of dying of the self(DyS), fear of dying of others(DyO)]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삶의 의미수준 상집단이 가장 낮은 죽음불안을 보였고, 삶의 의미수준 하집단이 가장 높은 죽음 불안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Tate(1982), Flint, Gayton과 Ozmon(1983), Amenta

(1984)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은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있게 살아간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자연스럽게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삶의 의미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진원(1995). 종교와 삶의 의미 수준 · 불안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 & 손양숙(1984).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4.
- 박화조(1976). 고교생의 삶의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栢木哲夫, 박수길 역(1990). 받쳐주는 삶과 죽음. 서울 : 오상출판사.
- 서혜경(1987). 한미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7.
- 신득렬(1981). 교육철학. 서울 : 학문사.
- 신숙희(1982). 대학생의 실존적 공허에 대한 조사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혜정(1992).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노인의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화(1986). 대학생의 생의 의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미란(1981).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지연(1989). 죽음에 대한 불안태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이텍저. 이인석외 2인 공역(1986). 죽음의 철학. 서울 : 청람문화사.
- 한미정(1994).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죽음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menta, M. M.(1984). Death anxiety, Purpose in Life and duration of service in hospice volunteers, *Psychological Reports* 54.
- Collett, L., & Lester, D.(1969). The fear of death and dying. *Journal of Psychology*, 72.
- Crumbaugh, J.C. & L.T. Maholick(1964). An Experimental Study of in Existentialism : The Psychometric Approach to Frankl's Concept of noegenic neuro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
- Crumbaugh, J.C.(1968). Cross Validation of Purpose in Life Test based on Frankl's Concepts. *Journal of Psychology*. 24.
- Feifel, H., & Branscomg, A.B.(1973). Who's afraid of dea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1.
- Flint, G.A., Gayton, W.F. & Ozmon, K.L.(1983).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acceptance of death by elderly person, *Psychological Reports*. 53.
- Frankl, V.E.(1967). 심리요법과 현대인. 이봉우 역(1979). 왜관 : 분도출판사.
- Frankl, V.E.(1969). 로고테라피의 이론과 실제 : 의미에의 의지. 이봉우역(1980). 왜관 : 분도출판사.

- Frankl, V.E.(1969). 정신세계의 병리와 해부. 이현수 역(1983). 서울 : 양영사.
- Kalish, R.A.(1976). Death and dying in a Social context.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Binstock, R.H. & Shanas E.(ed). van Nostrand Reinhold.
- Kalish, R.A., & Reynolds, D.K.(1976). Death and Ethnicity : Psychological Study. Los Angeles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 Kubler-Ross, E.(1969). 인간의 죽음. 성염 역(1979). 왜관 : 분도출판사.
- Lester, D.(1990). The Collett-Lester Fear of Death Scale : The original version and a revision. *Death Studies*, 14.
- Loo, R. & Shea, L.(1996). Structure of The Collet-Lester Fear of Death and Dying Scale. *Death Studies*, 20.
- Martin, D.S., & Wrightsman, L.(1965).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behavior and concern about deat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5.
- Murphy, L.(1967). Extent of purpose in life and four Frankl-proposed life objectiv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Ottawa.
- Reker, G.(1977). The Purpose in Life Test in an inmate population :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Tate, L.A.(1982). Life Satisfaction and Death Anxiety in aged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 Templer, D.I.(1970).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death anxiety Scale. *The J. of General Psychology*.
- Templer, D.I.(1971). Death Anxiety as related to Depression and Health of Retired person. *J.O.G.* 26.
- Tillich, P.(1978). 존재에의 용기. 현영학 역 (1984). 서울 : 전망사.
- Wagner, K.D., & Lorion, R.P.(1984). Correlates of death anxiety in elderly pers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5).
- Williams, R.L., & Cole, S.(1968). Religiosity generalized anxiety and apprehension concerning deat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5.

A Study about the Relation of the Purpose in Life and the Death Anxiety

Mee-Jung Han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Woman's University

Jung-Yoon Choi

Department of Psychiatry
Kang Nam Saint Mary's Hospital Catholic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urpose in Life and Death Anxie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184 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teacher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10 years.

The measurement tools are Purpose in Life(PiL) test and Collett-Leaster's Fear of Death and Dying Scale(FDDS). The subscales of FDDS are composed of four subscales: fear of death of self, fear of death of other, fear of dying of self, and fear of dying of ano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ean and the range of PiL are 75.94(SD= \pm 10.56) and 20 - 100 respectively, and the mean and the range of FDDS are 93.35(SD= \pm 11.68) and 36 - 144.

2. 17 percent of subjects responded that they were experiencing existential vacuum which was indicated on the lowest points on Purpose in Life.

3. In particular, subjects' age i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in predicting the level of fear of death: the group of subjects in their thirtie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fear of death, whereas the subjects in their fifties showed the lowest level of fear of death.

4.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urpose in Life and Death Anxiety($r=-0,368$, $p<.001$): the higher the level of Purpose in Life, the lower the level of fear of death.